

그린뉴딜 8.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

- 8.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탄소제로 청정 에너지 전남 실현
-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12만여개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
- 450개의 해상풍력 기업육성을 통해 글로벌 해상풍력 메카로 도약

□ 추진배경

- 해상풍력은 ‘그린뉴딜’ 사업의 핵심으로 전남의 블루에너지 비전 실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산업의 동력
- 정부의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에 부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달성 기여
- 신안을 비롯한 전남 서남권지역은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력 보유,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최적지
 - 전남 해상풍력 잠재량은 12.4GW로 전국 33.2GW의 37.3% 차지(전국 1위)
 - *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(산업부, 한국에너지공단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규모 : 투자 48.5조원, 기업육성 450개, 일자리 117,506개
- 사업내용
 -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(한국전력·전남개발공사, 116,206개 일자리)
 - 풍력발전기 생산·조립 단지 구축(일자리정책과·투자유치과·목포대, 직접일자리 1,300개)
 - 해상풍력 송전선로(한국전력) 부두·배후단지 개발(해운항만과, 목포시)
- 단계별 계획 : 기반시설 구축상황에 따른 3단계 추진

1단계 ('20 ~ '25)	→	2단계 ('22 ~ '27)	→	3단계 ('24 ~ '30)
▶ 4.1GW 규모		▶ 2.1GW 규모(누적 6.2GW)		▶ 2GW 규모(누적 8.2GW)
▶ 신장성 변전소 연계		▶ 신강진 변전소 연계		▶ 신화순 변전소 연계
▶ 투자 22조, 기업 육성 150개		▶ 투자 12조, 기업 육성 150개		▶ 투자 11.4조, 기업 육성 150개
▶ 직접 일자리 1,500개		▶ 직접 일자리 1,500개		▶ 직접 일자리 1,006개

□ 주요성과

-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관계자 간담회('20. 3. ~ 6.)
 - * 해상풍력 제조업체(터빈, 블레이드, 타워 등), 도내 전기·전자업체 등
-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 발굴 및 노사민정 분야별 컨설팅('20. 5. ~ 6.)
 - * 4개 분야 30개 과제(산업생태계 조성 12, 주민참여 7, 노사관계 5, 정부·지자체 지원 6)
- 해상풍력 저변확대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포럼('20.7.6.)
- 전남도·신안군·신안수협·새어민회 해상풍력 상생협약 체결('20.9.9.)
- 해상풍력·수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‘민관협의회’ 운영('20.11.5.)
-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프라 국가 기본계획 반영('20.11.)



□ 기대효과

- 해상풍력산업 메카조성으로 세계 5위 해상풍력 강국도약에 기여
 - 8.2GW발전단지조성, 450개 기업육성을 통해 해상풍력 메카 조성
 - 해상풍력 기술격차 완화, 주요부품 국산화 추진, 전문 인력양성 등
- 8.2GW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
 - RE100산업단지,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선도
-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국가·지역경제 활성화 원동력
 - 투자규모 48.5조원, 일자리창출 117,506개, 지역산업연계(조선업 등)